

탁 권사님께!

지난 13년간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만나는 정다운 사이였지만 한달 동안이나 권사님을 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5년전부터 선교차원의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크고 작은 일들로 때때로 심정을 상하거나 부딪치고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편지를 받고서야 당신이 큰 상처를 입고 우리 공동체를 떠난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13년간 성경을 연구하고 밖으로 구제, 선교활동을 활발하게 했으나 정작 가까운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권사님이 우리를 떠나시게 된 동기는 우리의 예배처소의 사무실을 만들기 위한 헌금 때문이었습니다. 바자회, 특별헌금, 금식으로 모은 헌금을 사무실 계약과정에서 불행하게도 계약금을 받은 성도님이 행방불명되면서 우리는 각양의 목소리로 각양의 해묵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헌금을 건넨 책임자로서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에 주님께서 제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사 고백하지만 지난 5년간 크고 작은 구제와 선교비를 보내면서도 선교비를 받은 그 영혼들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선교비만 보내었음을 고백합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해 왔노라 하면서 스스로 믿음 큰 사람들의 행세를 해온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선교비를 보낼 외적 능력은 있었으나 사랑 없이 행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그날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입니다. 계약금을 받고 행방불명되었던 그 성도님이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주님의 헌금을 껴안고 한달 동안 무섭게 싸우며 겪었던 죄악의 격장을 고백하면서 그는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구 분에게 얼마의 헌금을 축내었는가 묻지 않고 두손 잡고 함께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탁 권사님! 나의 사랑 없었음을 부디 용서해 주세요. 당신이 느끼셨던 나의 독선적인 성격과 아집과 모난 성품으로 인해 당신에게 상처가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날날이 용서해 주시구려.

다음 우리 모임날 권사님을 모시러 가겠습니다. 전날에는 당신이 늘 저를 수고로이 데리러 오셨으니....

교회 목표 생명의 예수 삶의 기쁨	'이 천년 교회생활' '주일에서 매일중심 신앙' <b>갈보리 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익명성 - 명예
제 2권 47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0년 11월 19일
☎269-8677/021-292-1639, ☒229A Ponsonby Rd. Ponsonby (Samoan Church)		

<내가 교회가 싫은 이유>

교회는 또 하나의 계급사회

Q) 세상은 계급사회다. 그러나 세상 못지 않은 계급사회가 교회에 있는 것을 보았다. 높고 낮음이 있는 계급이 존재하는 조직이라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없어서 교회 안 나간다.

A) 우선 교회에 계급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 현실에 회개의 심정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생명력은 세상적인 조직권세나 세상적인 금권에 의하여 유지되는 곳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을 따르는 영성안에서 그 생명이 유지되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젊은이의 실망은 사실일수도 있지만 큰 숲을 보지 못하고 부분적인 나무만 본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그 안에는 예컨대 더러 기본적인 교양 훈련이 부족한 사람도 끼여 있을 것이고 세속적인 처세 방법으로 교회 조직을 어떻게 움직여 보겠다는 정치적인 성향의 사람들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교회의 명성을 탐하여 스스로 교회사회의 일원으로 편승함으로 자신의 신분과 시나 신분상승에 유익을 도모해 보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도 모르고 일각에서는 젊은이와, 같은 시각을 가진 이들이 교회 전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일이 생긴다면 마치 가정 가장 한 사람만을 위한 조직처럼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서는 이런 맑지 못한 심성을 가진 이들이 말씀의 감화를 통해 언젠가는 맑은 심성으로 돌아오기를 말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영성으로 무장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는 근본적인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너무 부정적인 모습만을 보거나 보려고 한다면 코 앞의 산을 두고도 눈을 감고 있기에 안 보인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진실한 자기 신앙을 쌓아 가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자세여야 합니다.

